



영암 F1

22일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를 비롯해 루이스 해밀턴, 마크 웨버 등 세계 최정상급 드라이버들이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연습 주행을 갖고 세계 최대 스피드축제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공식 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서킷의 우승 향방은?

미끄러운 노면 승부 예측불허

22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막을 올린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많은 변수가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22일 연습 주행에 이어 23일 예선, 24일 결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우선 새로 만든 서킷에서 열린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올해 대회를 처음 여는 데다 경기장 최종 검수도 대회 개막을 불과 10일 정도 남기고 이뤄진 코리

컬 것이다. 대회 운영법인 KA-VO 김재호 부장은 "만일 비가 온다면 드라이버의 실력이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F1은 자동차 경주의 특성상 드라이버의 기술과 차체의 성능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레드불, 맥라렌, 페라리 등 강팀들은 승점을 300점 이상씩 쌓는 반면 로투스, HRT, 버진 레이싱 등은 1점도 따내지 못하고 있는

비오면 드라이버 기술력·차체 성능 영향

이 인터내셔널 서킷은 일단 바닥이 비교적 미끄러운 것으로 전망된다. 로투스 팀 관계자는 "노면을 깐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일이 표면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울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22일 연습, 23일 예선을 거친다고 하지만 몇 년씩 달려본 외국 대회 코스보다 훨씬 생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코스 자체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날씨다. 영암에는 결선이 열리는 24일 새벽부터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이다.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도 21일 인터뷰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 이번 대회는 변수가 크다"고 내다봤다. 비 자체도 큰 변수지만 가파르거나 미끄러운 것으로 보이는 서킷에 비까지 내리면 그 변수는 더

이유는 물론 드라이버 실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머신의 성능 차이 탓이 크다. 그러나 노면에 변수가 커지면 어차피 타이어는 모든 팀이 똑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드라이버의 기술에 의해 순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F1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을 떠나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는 각종 장비의 운송이나 드라이버들의 시차 적응 등 달라지는 점이 많다. 올해 아시아 대회는 시즌 개막 전이었던 바레인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5차례 있었고 세바스티안 베텔(독일·레드불)과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가 2승씩 거뒀다.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F1 그랑프리 초대 챔피언은 누가 될 것인지 팬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도마 강자 양학선 메달 보인다

<광주체고>

세계 선수권 단체16.666점... 출전 선수중 최고
국제대회 3연속 개인 신기록... 24일 결선 기대



남자 체조대표팀의 막내 양학선(18·광주체고)이 제42회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연일 고득점을 받아 차세대 간판으로 입지를 굳혔다. 양학선은 22일 오전(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아호이 로테르담 아레나에서 막을 내린 단체전 결선 도마 종목에 출전, 16.666점으로 이날 도마를 뛸 선수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난도 7.0짜리 기술을 선보인 양학선은 실시점수에서 9.666점을 얻었다. 실시점수는 10점 만점에서 실수가 나오면 깎아서 이뤄진 점수로 그만큼 이날 양학선의 실수는 거의 없었다. 지난 19일 단체전 예선에서 혼자 도마를 두 번 뛰어서 각각 16.433점과 16.100점을 받아 평균 16.266점으로 8명이 겨루는 종목별 결선에 4위로 진출한

양학선은 이날 자신의 국제대회 최고 점수를 또 넘어서 24일 밤 9시 열린 결선에서 메달 전망을 밝혔다. 첫 국제대회였던 지난 7월 재팬컵 초청대회에서 16.150점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운 것까지 합하면 국제대회 3연속 신기록 행진이다. 특히 이날 도마 종목별 결선에 1위로 오른 안톤 콜로초코프(16.133점·러시아)와 3위로 오른 토마스 부엘(16.066점·프랑스)을 가볍게 눌러 자신감도 덩어려 보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 꿈을 이뤄줄 유망주로 평가받는 양학선은 주변의 기대대로 성장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했다. 관중이 많은 대회에서 처음 뛰는 양학선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날렵한 공중동작과 완벽한 착지를 펼쳐 '강심장'임을 보였다. /연합뉴스



KIA 출신 양승호 롯데 사령탑 취임

양승호 전 고려대 감독이 롯데 자이언츠의 새 사령탑에 취임했다. 양승호 감독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로이스터 감독이 추구하던 빅볼에 세밀한 스몰볼을 더해 좋은 성적을 거둬 팬들의 지지를 얻겠다"고 밝혔다. 양 감독은 또 "롯데가 타력에 비해 투수력이 약하지만 절대적으로 약한 것은 아니다"며 "투수 용병 영입 등으로 투수력도 정상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했다. 해태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양 감독은 두산 수석코치와 LG 감독대행 등을 거친 뒤 지난 2007년부터 고려대 야구부를 지휘해 왔다. /김여울기자 wool@

지구촌 축제의 장

F1 대회는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단 하나의 통로입니다. 무한질주, 역동적인 파워를 느껴보세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투어뱅크
 예약문의: 062-224-0022
 금남로 1가 전일빌딩 1층

좋은사람, 좋은여행-
참좋은여행
 예약문의: 062-515-7600
 롯데백화점 광주점 건너편

주클럽모두
 항공권 각종 선박권 문의환영!
 예약문의: 062-228-1990
 금남로 5가 우리은행 맞은편